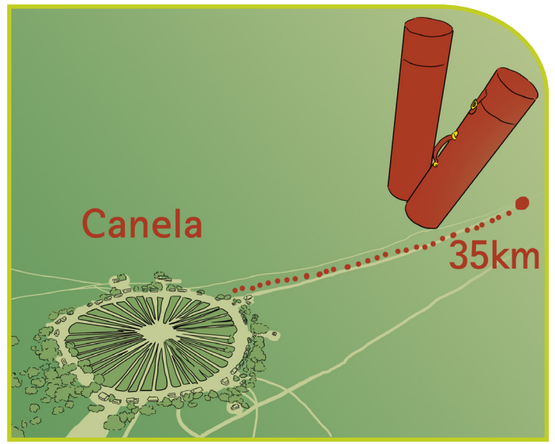
WYCLIFFE
성경, 펼쳐진 하나님 사랑

누구일까요..?



성경을 함께 읽어요

예레미야 25:1-9
31:27-34
35:12-19

생각해요

하나님, 저도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. 더 많은 민족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자기 말로 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!

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,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.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절 당 1센트 혹은 장 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. 참가를 원하 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.
rbbb.wycliffe.ca 416-888-2262

Copyright © 2012 by Wycliffe Canada. All rights reserved. 모든 저작권은 위클리프 캐나다에 있으며, 동의/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 및 온라인 게시를 금합니다.

누구일까요?
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사님도, 선교사님도 없는 마을!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. 어떻게 된 것일까요?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?

카넬라 마을에는 교회도 성경공부 선생님도 없었습니다. 다만 3년 전 브라질 정부에 의해 카넬라 마을을 떠난 잭과 조 팝치스 선교사님이 남긴 문서가 있었을 뿐입니다. 그 문서는 선교사님이 10년간 카넬라 사람들과 일하면서 만든 문해사역 자료(글을 읽도록 돕는 자료)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습니다.

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잭 선교사님이 다른 문서는 나눠줄 수 있지만 성경은 카넬라 부족에게 나눠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. 깊은 고민에 빠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, 카넬라 사람들은 잭 선교사님에게 아침 일찍 두 문서를 통에 넣어 마을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. 그리고 마을에서 35km 떨어진 곳에 두 통을 놓고 가면, 추장의 아들이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. 그곳은 카넬라 마을 지경 밖이였기에 브라질 정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렇게 카넬라 마을에서 3년이 흘렀습니다. 교회도 없고, 성경공부도 없고, 선교사님도 없이…

그러나 3년이 지난 어느날, 꼬박 일 주일 동안을 걷고 트럭을 타고, 버스를 타고, 다시 걸어 800km 떨어진 잭 선교사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. 함께 카넬라말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번역하던 야코라는 친구였습니다. 그런데 야코라는 친구가 스스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

야코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던 중 마음 속에 질문을 듣게 되었답니다. 도대체 언제 이 말씀에 순종하겠니? 야코는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"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아버지, 이 종이에서 읽었는데,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. 제발 절 도와주십시오." 그 때 "하나님이 저를 그분의 가족으로 맞아(입양해) 주셨습니다. "(pp.69-71, A Kick in the Pants, by Jo & Jack Popjes)

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야코 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야코의 말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.

교회도 선교사도 그 누구도 없어 버려진 곳이라 여겨진 그곳이었습니다. 단지 두권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카넬라 부족을 직접 불러 말씀하셨고,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. 더 많은 민족들이 입양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, 각자의 말로된 성경이 번역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.